

# SK, 본사사옥 매각 “자금난 우려”

## 메릴린치 컨소시엄 우선협상자 선정 ... 인천정유 인수투자 부담으로

SK가 최근 인천정유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고 최종현 회장의 손때가 묻은 사옥까지 메릴린치 컨소시엄에 매각키로 해 자금난에 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SK는 당초 인천정유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인수와 고도화설비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인천 물류센터 부지와 서린동 본사 사옥 매각을 검토해왔다.

다만, 사옥은 후순위 매각대상으로 다른 자산 매각이나 자산유동화 증권(ABS) 발행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면 매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사옥매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해왔다.

필요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사옥을 매각하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사옥매각이 자칫 자금난으로 비추어져 증시나 직원들의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SK 서린동 사옥은 최태원 회장의 선친인 고 최종현 회장이 여의도와 을지로 등에 산재한 그룹 계열사들한테 모으기 위해 생전에 의욕적으로 건립을 추진한 건물로 1999년 11월 완공 이후 SK가 여의도에서 서린동 사옥으로 이전했다.

특히, 35층에는 최종건 1대 회장과 최종현 2대 회장의 흉상이 설치돼 있어 상징성이 큰 건물로 인식돼왔다.

따라서 SK가 서린동 사옥을 매각키로 한 것은 인천정유 인수와 고도화설비 자금 마련의 어려움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정유업계 주변의 전반적인 시선이다.

SK는 우선 인천정유 인수 MOU 체결에 따라 인천정유 유상증자 참여 및 회사채 인수에 1조6000억원씩 총 3조2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또 울산공장 및 인천정유 시설 개선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Enron Internationa Korea가 보유하고 있는 SK엔론 지분 50%(500만주) 중 절반 미만을 주당 5만8939원에 인수하는 동시에 SK가스에 대해서도 지주회사인 SK엔론이 보유한 지분 45.53%(392만 8537주)를 950억원 가량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혀 수년간 수조원대의 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메릴린치 컨소시엄이 장부가격 보다 대략 1000억원 높은 4500억원 안팎의 인수 희망가격을 써내자 매각입찰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는 후문이다.

SK 관계자는 “사업자금을 적시에 조달하기 위해서는 사옥도 언제든지 매각대상 자산이 될 수 있는 시대”라면서 “사옥 매각 이후에도 Sales & Lease 방식으로 5년간 사옥을 빌릴 방침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5/09/27>